

200억 놀이기구에 엄마·아빠도 동심속으로

춘천 레고랜드

꽃 테마 '브릭폴 스프링 페스타' 미니랜드엔 국내 랜드마크 재현 최고 인기 테마 시리즈 '닌자고' '체리 블라썸 가든'엔 벚꽃 한창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는 꽃을 테마로 한 '브릭폴 스프링 페스타'와 함께 돌아왔다.

강상헌 기자

기승을 부리던 동창군도 어느새 물러갔다. 한파가 지나자 도심 곳곳이 나들이객으로 북적인다. 강원도 춘천에 위치한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도 예외는 아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부모님의 카메라 셔터 누르는 소리가 잔잔한 봄바람을 타고 레고랜드에 흐르고 있다.

26일 ITX 청춘을 타고 춘천으로 향했다. 춘천은 예나 지금이나 마음 설레는 곳이다. 대학교 MT를 가던 그때의 기억이 새록새록 돌아난다. 요즘은 춘천은 아이들과 부모님들에게도 추억을 쌓기 좋은 장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 덕분이다.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는 만 2세에서 12세까지의 어린이와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국내 첫 글로벌 테마파크다. 강원도의 청정 자연에 둘러싸인 아름다운 섬에 지어졌으며 40여 개의 놀이기구와 아트랙션 및 쇼로 구성된 7개의 레고 테마 구역으로 나뉜다. 레고 테마로 꾸며진 레고랜드 호텔은 154개 객실을 보유하고 있다.

2번째 봄 시즌을 맞이하는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는 꽃을 테마로 한 '브릭폴 스프링 페스타'와 함께 돌아왔다. 레고랜드 정문을 지나자 봄의 설렘을 느낄 수 있는 봄테마 대형의 포드존인 '플라워 파티 존'이 우리를 반긴다.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방문객들이 이곳에서 사진을 찍기 위해 줄을 서 있었다. 아이들에게는 기다리는

시간도 즐거워 보였다. 아이들은 눈과 입을 통해 들뜬 마음을 드러냈다. 플라워 파티 존에서 추억을 담았다면 이번에는 미니랜드로 떠나보자. 한국의 주요 도시와 관광지를 레고 브릭을 사용해 작은 크기로 재현한 테마 구역이다. 서울, 강원, 제주도, 부산 등 국내 8개 사·도의 랜드마크를 만나볼 수 있다. 리조트 건설에 사용된 레고 브릭 3000만 개 중 700만 개 이상이

미니랜드를 제작하는 데에 사용됐을 정도로 큰 규모를 자랑한다. 압도적인 모습이 감탄이 나오는 건 아이나 부모님이나 마찬가지다. 곳곳에서 연신 '우와'라는 감탄사가 들려온다. 발판을 밟으면 레고 브릭들이 움직이는 곳도 있다. 이때만큼은 어른이나 아이 할 것 없이 모두 눈이 커진다. 어른들은 아이들의 이런 모습을 담기 위해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눌러댄다.



레고랜드 미니랜드에 재현된 서울 명동거리.

강상헌 기자

이제는 레고 최고의 인기 테마 시리즈인 '닌자고' 세계관으로 이동할 차례다. 닌자고 월드에서 가장 먼저 눈을 사로잡는 건 '체리 블라썸 가든'이다. 분홍빛 벚꽃과 닌자고 세계관이 절묘하게 어우러져 있다. 강원도 최고의 벚꽃 명소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이들에게 닌자고 월드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뛰어놀기에 제격인 장소다. 어른들에게도 좋다. 일본 애니메이션을 연상케 하는 일본풍 공간에서 앉아 선선한 봄바람을 맞으며 쉬어갈 수 있는 곳이다.

닌자고 월드는 '레고 닌자고 더 라이드', '카이의 파이어 스피너' 등이 인기 놀이기구로 자리 잡고 있다. 여기에 2025년 상반기 중에 닌자고 신규 놀이기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약 200억 원을 투입해 2640㎡(약 800평)의 부지에 세운다는 계획으로 27일에 착공식도 열렸다. 이순구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 대표에 따르면 신규 닌자고 아트랙션은 전 세계 레고랜드 중 한국에 최초로 만들어지는 사실이다.

춘천·강상헌 기자

브릭폴 스프링페스타

- 스프링 레고랜드
 - 플라워 파티 존 (브릭트릿광장) : 레고랜드 정문을 지나면 가장 먼저 플라워 파티존을 만날 수 있다. 대형 플라워 장식으로 단장한 파티존에서 사진도 찍고 '레츠고 파티고' 공연도 즐길 수 있다.
 - 체리 블라썸 가든 (닌자고 월드) : 레고 닌자고 월드가 핑크색 벚꽃으로 가득한 아름다운 모습을 눈에 담을 수 있다. 체리 블라썸 가든에서 힐링도 하고 인생샷도 찍어볼 만 하다.
 - 플라워 팝업마켓 (레고 시티광장) : 영원히 지지 않는 레고 보태니컬 플라워 시리즈로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사진도 찍고 따뜻한 마음을 전해 보는 건 어떨까.

- 닌자고 트레이닝 팝업 존
 - [체험존] 닌자고 트레이닝 팝업 (레고 닌자고 월드) : 닌자고 트레이닝 팝업에서는 특별한 미션들을 수행할 수 있다.
 - [실내공연] 닌자 트레이닝 클래스 (브릭토퍼 퍼포먼스 시어터) : 스피드 쥘을 수련하기 위해 니아, 카이와 함께 훈련하는 꼬마 닌자들의 좌충우돌 트레이닝 클래스를 함께 즐겨볼 수 있다.
 - [야외공연] 닌자고 파티고 (레고 닌자고 월드 닌자 스테이지) : 닌자고 친구들과 함께 야외에서 특별한 파티를 즐기기에 제격이다.
 - [포토타임] 닌자 투게터 (레고 닌자고 월드) : 닌자고 친구들과 닌자 마스터들과 만나 스피드 쥘 포즈 취하고 사진도 찍어볼 수 있다.

스포츠도, 건전화 평가서 A등급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주관한 '2023년도 사행산업자 건전화 평가'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도, 건전화 평가서 A등급을 획득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주관한 '2023년도 사행산업자 건전화 평가'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도, 건전화 평가서 A등급을 획득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주관한 '2023년도 사행산업자 건전화 평가'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도, 건전화 평가서 A등급을 획득했다.

총 5개 부문의 16개 지표를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2023년도 사행산업자 건전화 평가에서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도) 사업은 지난해 받은 총점 78.55보다 2.85점이 오른 총점 81.40으로 연속 'A등급'을 획득하는 데 성공했다. 강상헌 기자

김종규·서민수 오늘 카페 팬서비스

프로농구 원주 DB 프로미의 김종규, 서민수가 29일 카페 팬 서비스를 한다. 김종규와 서민수는 이날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원주종합체육관 인근 카페 픽업 플레이에서 팬 서비스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팬 서비스는 카페를 찾은 팬들과 더 가까운 곳에서 소통할 수 있는 팬 감사 이벤트의 일환이다. DB는 "정규리그에서 우승하기까지 한결 같은 마음으로 응원해 주신 '원디' 팬들에게 보답하기 위해 행사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또한 정규리그 마지막 홈 경기일인 31일에는 2023-2024 시즌권 회원들을 대상으로 픽업 플레이에서 무료로 음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DB 구단 사회관계장서비스(SNS)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종민 기자

원정	구장	홈	중계
KIA	<경남>	두산	SPOTV2
NC	<사투>	롯데	SBS SPORTS
SSG	<대구>	삼성	MBC SPORTS+
LG	<고창>	키움	TVING
KT	<대전>	한화	SPOTV

*29일 경기 시간은 모두 18:30
*30일은 대전(14:00) 제외 17:00 *31일은 14:00

시간	홈	구장	원정	중계
14:00	인천	<인천 전용>	대전	JTBC G&S
14:00	전북	<전주 월드컵>	울산	스카이스포츠
16:30	수원FC	<수원 종합>	김천	IB 스포츠
16:30	제주	<제주 월드컵>	포항	스카이스포츠

(31일)
14:00 강원 <춘천 송암> 서울 JTBC G&S
16:30 광주 <광주 전용> 대구 스키스포츠
쿠방플레이어는 모든 경기 중계

대한항공 첫 4연패냐 OK금융 8년 만의 V3냐

오늘 챔피언결정 1차전... 외국인 감독 지략 맞대결



프로배구 V리그 남자부 대한항공과 OK금융그룹이 2023-2024시즌 우승 트로피를 놓고 진검승부를 벌인다.

대한항공과 OK금융그룹은 29일 오후 7시 인천 계양체육관에서 2023-2024 도드람 V리그 남자부 챔피언결정전 1차전을 치른다. 챔피언결정전은 5전 3승제다. 1차전과 2차전(31일)은 대한항공 홈인 인천에서, 3차전(4월 2일)과 4차전(4월 4일)은 OK금융그룹의 홈인 안산 상록수체육관에서 펼쳐진다. 5차전 승부로 갈 경우 경기는 4월 6일 다시 인천에서 열린다.

챔피언결정전 사상 최초 외국인 사령탑 대결이 펼쳐지면서 관심이 쏠린다. 토미 킬리카이엔(핀란드) 대한항공 감독은 지휘봉을 잡은 후 3시즌 연속 통합 우승에 도전한다. 오기노 마사지(일본) OK금융그룹 감독은 부임 첫 시즌에 챔피언결정전에 오르는 저력을 발휘하며 내진감에 정상을 노린다.

우선 대한항공은 앞서 3연패에 성공했고 올 시즌에도 정규리그 1위(승점 71)에 오르며 건재를 과시했다. 대한항공이 이번에도 우승하면 2011-2012시즌부터 2013-2014시즌 통합 3연패를 이뤘던 삼성화재를 넘어 최초로 통합 4연

대한항공 교체 외인 막심 활약 OK금융은 레오 활용 전술 변수



막심 레오

패 위업을 세운다. 대한항공은 시즌 중반까지 다소 흔들렸지만 막판 상승세를 타고 우라카드가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지면서 극적으로 1위에 올랐다. 챔피언결정전의 관전 중 하나는 러시아 국가대표 출신 아포지 스파이키 막심의 활약 여부다. 22일 입국한 그는 팀 훈련에 합류했으나 충분히 적응했는지 미지수다. 세터 한선수의 안정적인 볼배급에 따라 막심의 활약이 좌우될 수도 있다. 물론 임동혁, 정지석, 박승석, 정한영 등도 버티고 있어 여전히 챔피언의 위용을 갖춰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규리그 3위(승점 58) OK금융그룹

은 플레이오프(PO)에서 2위(승점 70) 우라카드를 2연승으로 격파하고 올라온 덕분에 자신감이 넘친다. OK금융그룹이 챔피언결정에 오른 건 2015-2016시즌 이후 8년 만이다. 2014-2015시즌과 2015-2016시즌에 이어 팀 통산 3번째 우승을 이루겠다는 각오다.

승부수는 레오를 활용한 유연한 전술이다. 오기노 감독은 경기 상황에 따라 레오의 공격 비중을 조절하고 있다. 앞서 우라카드와 PO 1차전(3-2 승)에선 레오를 주로 활용했다. 레오는 1차전에서 41.22%의 공격 점유율을 보이며 29점(공격 성공률 50.0%)을 기록했다. 하지만 2차전에선 전략을 바꿨다. 2차전 레오의 공격 점유율은 30.43%에 머물렀다. 레오는 12점을 올리는 데 그쳤다.

오기노 감독은 대신 국내 선수들의 공격 비중을 높였다. 신호진(21.74%), 송희재(17.39%)에게 평소보다 더 많은 공격을 주문했다. 신호진(9점)과 송희재(8점)는 우라카드 격파에 힘을 실었다. 상대 외국인 선수의 적응이 변수인 상황에서 레오를 중심으로 둔 유연한 전술 전개는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

오기노 감독은 "챔피언결정전에서 뛰게 돼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 지난 1년간 해온 OK금융그룹만의 배구를 보여주면 되지 않을까 한다. 최선을 다하면 결과는 따라올 것이다"라고 포부를 나타냈다. 박종민 기자

80년대생 초보 이범호 출발 순조

KIA 9년 만에 개막 3연승 질주 특유 친화력으로 분위기 주도



프로야구 첫 1980년대생 사령탑 이범호 감독이 이끄는 KIA 타이거즈의 2024시즌 초반이 인상적이다.

KIA는 28일 오전 기준 2024 신한 SOL 리그에서 3전 3승으로 단독 선두에 올랐다. KIA의 개막 3연승은 2015년 4월 1일 이후 9년 만이다. KIA는 시즌 초반이지만 지난해와 다른 모습으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2023시즌 1점 차 패배가 키움 히어로즈(22패) 다음으로 많은 21회였지만 올 시즌에는 지난 23일 키움전(7-5 승), 26일 열린 롯데 자이언츠와의 시즌 첫 3연전 중 첫 번째 경기(2-1 승)를 모두 불펜의 호투 덕에 승리를 거뒀다. 시즌 초반 치열한 접전에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수확했다.

이 감독은 김중국 전 감독의 개인 비위 문제로 계약 해지로 호주 시드니 스프링캠프 훈련 중 갑작스럽게 KIA의 새 사령탑에 올랐다.

하지만 KIA의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좋다. 이 감독은 특유의 친화력과 순발력, 재치를 앞세워 젊은 감독으로 KIA의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또한 이 감독은 '준비된 지도자'의 모습을 유감 없이 뽐내고 있다. 이 감독은 4번 타자인 주장 나성범이 오른쪽 햄스트링 부

분 손상으로 전열에서 이탈하자 침착하게 팀 운영 전략을 변경했다.

먼저 투수진부터 손봤다. 이 감독은 시즌 초반 선발 투수들의 투구 수가 많지 않은 것을 고려해 엔트리에 야수 대신 투수를 1명 더 추가했다. 투수가 추가돼 기용 인원이 적어진 야수진은 포수 명단을 3명으로 짜 경쟁력을 시험 중이다. 또한 지난해 말 마무리 캠프부터 1루수로 변신한 이우성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좌익수 대신 1루수와 수비 각도가 비슷한 우익수로 기용했다.

한 주에 6경기를 치러야 하는 프로야구에선 불펜투수들의 체력 관리가 필수다. 잦은 연투는 부상의 위험과 팀이 부진에 빠질 가능성을 동반한다.

이 감독은 이 부분에서도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가졌다. 이 감독은 3연투를 최대한 절제하고, 필승조를 5명으로 늘려 선발뿐만 아니라 불펜 투수진에도 '로테이션'을 가져왔다. 이 감독의 구상은 다음과 같다. 임기영과 장현식은 5회 또는 6회에 투입 후, 최지민과 전상현은 상황에 따라 7회와 8회를 맡고, 마무리 정해영으로 이어지는 루트다. 일정의 변경 등으로 상황이 바뀌어 연투 부담이 생기면 장현식과 임기영이 로테이션 위치를 바꿀 수 있다.

이 감독의 철저한 로테이션에 따라 KIA는 3경기를 치르는 동안 불펜 투수진이 단 한 점도 내주지 않으며 승리를 거뒀다. 이 감독은 다가올 4월과 5월 최대한 많은 경기에서 승리를 가져올 것을 다짐했다. 류정호 기자

오늘의 경기

농구 • 정관장 프로농구 • KCC-현대모비스(19시·부산사직체육관) • 제49회 협회장기 전국남녀중고대회(9시30분·영광 스포티움 국민체육센터) 배구 • 도드람 V리그 남자부 챔피언결정 1차전·대한항공-OK금융그룹(19시·인천계양체육관) 축구 • WK리그 • 문경상무-인천현대제철(16시·문경시민운동장) • 수원FC-인천-창녕WFC(수원종합운동장) 서울시청-경주한수원(상암보조구장) • 화천KSP-세종스포츠도(화천생활체육공원·이상 19시) 핸드볼 • 신한SOL Pay H리그 • 하남시청-충남도청(18시) • SK-경남개발공사(20시·이상 부산시장체육관) • 협회장비 전국중고선수권대회(10시·경남 고성 국민체육센터) 사격 • 파리 올림픽 대표 선발전(9시30분·창원국제사격장) 역도 • 춘계선수권대회(10시·강원 양구 용화체육관) 야구 • 2024년도 국가대표 1차 평가전(9시·청주 김수녕양궁장) 탁구 • WTT 챔피언스 인천 2024(9시·인천 인스파이어 리조트) 테니스 • 제1차 한국실업연맹전(합양공설운동장) • 제78회 전국춘계대학연맹전(양구테니스파크) • 영월 국제주니어대회(영월스포츠평크)

Smart Economy sporbiz.co.kr 한스경제
대표번호 02)725-6007 이메일 sporbiz@sporbiz.co.kr
구독/광고 02)738-9007 기사제보 02)725-7563 FAX 02)725-3939
발행인 송진현 편집국장 이철균 총괄부사장 김창겸
서울시 중로구 율곡로 2길 7 서머벤티티서울 4층. 구독료 1부 700원 한달 13,0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등록번호 서울 가 50072